

불자 세상보기

가정주부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졌다니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가정의 달이라는 5월에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불륜, 이혼 등이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데 최근에는 평범한 주부들의 도박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상식은 이제 그야말로 진부한 말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이 든다. 남편의 무관심과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손을 벗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자녀들의 낯 설은 모습이 주부들을 외롭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어울리는 횡수가 늘다보면 친목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고백이란다. 처음엔 고립감과 허전한 마음에 심심풀이로 시작한 화투놀이가 급기야 자녀들의 방치와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당사자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쯤 되

고 보면 가정주부들의 도박중독은 개인적 차이를 넘어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가정주부들의 일탈행위가 이처럼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다. 도박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충청도의 어느 도시에서는 산에 천막을 쳐놓고 도박판을 운영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현장에서 단속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다는 전언이고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박에서 돈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박의 속성상 그리고 인간의 속성상 반드시 돈을 잃고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어쩌다 돈을 따게 되면 다음에는 더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고 또 잃으면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더욱 도박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결론은 말하나 마나 뻔한 일이고, 도박중독은 마약중독 이상으로 치유하기 힘든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 소설 속에서 남편이 자기 마누라를 친구

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나이 많은 영감에게 팔아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서글픈 장면도 목격하지 않았던가. 이는 작가의 상상력이 낳은 순수허구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노름하는 놈은 손목을 잘라도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00은 해도 절대로 노름만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었다. 도박은 그렇게 무서운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집안 형님 한 분도 도박으로 돈 잃고 직장 잃은 뒤 삶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그에게 주변의 어느 누구도 동정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동안 돈 빌려달라는 요구에 너무나 시달렸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주부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가정불화 등 가정 안의 문제가 주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정의 뿌리인 주부들의 도박장 출입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가 어느 때 보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바쁘다 핑계로 소원했던 가족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가족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아내와 엄마를 가정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책이 아닐까. 어제 밤에는 늦게 들어온 주제에 뜬금없이 같이 사는 보살에게 요새 낮에 뭐하고 지내느냐고 물었다.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신병훈연구소에 있는 아들놈에게 인터넷 편지도 쓰고 문화센터에 가서 못 만드는데 배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줄 알면서 난 데없이 무슨 의처증적인 질문? 이라는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밥 좀 줄 수 없느냐고, 늘하던 요구사항을 똑같이 반복했다. 언감생심 남의 가정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마늘냄이 그 자식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쌓인 불만도 해소할 겸 스크린 경마장을 들락거리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상황이 때문이다. 가정의 달에 문득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해야 할 사람이 비단 필자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동국대 새 총장 보광 스님의 '一心同行'

"우리는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일심동행의 바탕위에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끝까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국대 신임 총장 보광 스님의 선출 이후 내놓은 일심(一心)이다. 5월 2일 동국대 이사회는 동국대 총장으로 보광 스님을 선출했다. 스님의 동국대 총장 선출은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후 29년만이다. 보광 스님의 향후 계획은 선출 이후 발표한 소회에서 잘 드러난다. 가장 큰 기조가 바로 '일심동행(一心同行)'이다. 스님은 "구성원을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어,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반듯한 총장이 되겠다"며 "대학은 본질적으로 이윤 추구기업이 아닌 인재육성교육기관인 만큼 불교인재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조직으로 바뀐 대학구조를 교육기관에 적합한 대학형 조직으로 바

꾸고 △동국대 의료원 정상화 및 발전 △108주년 기념관 건립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응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보광 스님의 행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정각원 개혁이다. 정각원이 학내 불교신행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각원장에 비구니 해주 스님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대학 발전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교대학발전위원회와 불교대학교원초빙위원회 등 대학발전에 저해되는 기구들의 개편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보광 스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그간 불거졌던 학내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해야 한다. 현재에도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고 학생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광 스님의 선출 직후 밝힌 기조가 '일심동행'인 만큼 대승적 자세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문제점을 함께 토론했고 공의를 모아야 한다.

이주민 봉사자들의 '어르신 수요공양방'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이 운영하는 '어르신 수요공양방(이하 수요공양방)'이 5월 6일 100회를 맞았다. 2012년 문을 연 수요공양방은 매주 수요일 경북 구미 인근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이주민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소규모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신명단체를 비롯해 각 사찰 등에서 어르신들을 초청해 공양을 대접하는 곳은 많다. 하지만 수요공양방은 좀 특별하다. 이주민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매주 마련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진오 스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스님은 고민했다. 해결책을 찾다가 스님은 이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자는 게 스님의 생각이었다. 그 예상은 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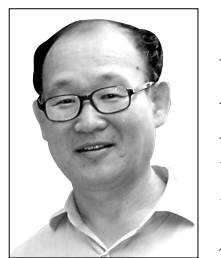
했다. 물론 그들이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무리인 탓에 배식과 뒷정리 정도의 봉사만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주민들에 대한 오프와 선인연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주민들은 그동안 소외계층으로 여겨져 주로 도움을 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도 누군가를 위해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므로 스님도 피부색과 국적이 다른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같은 친근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은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들에게 존재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지역민들과 통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발언대

동국대 새 총장에 바란다

동국대가 총장 선출을 계기로 보직인사 등 후속 안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불자들의 힘을 학교발전엔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수와 학생 등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건학이념 구현 위해 힘 모을 때"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제18대 동국대 총장 선출을 계기로 교내의 안팎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학교 안정화를 비롯해 각종 발전 사항 등 그동안 동국대가 불자들에게 받아온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건학이념에 맞는 학교 운영일 것이다. 동국대의 건학이념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중 첫 번째가 바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를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구현을 위해서는 인연을 중시여기고 모든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국인들이, 불자들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장 먼저 역사의식은

동국대가 불교계의 심의일반의 힘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동국대가 올해로 109주년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25개 본사의 스님들이 근검절약해 모으고 모은 재원이 투입됐다. 먼저 동국대 구성원들은 불교계와 동국대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자들도 불교계 선각자들이 세운 동국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아직 학교운영 전반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남아있다. 첫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한다. 둘째는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불자라면 그 무엇보다도 자비의 정신으로 상생해야 한다. 새로운 총장을 중심으로 학교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역사의식이다. 학교발전은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인재를 배출하고 수많은 현대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학교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금 불교학 발전을 기대"



서정진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장

이번 동국대 총장은 29년만에 스님 총장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수습년 동안 불교학을 연마한 불교학 전문가인 스님이 총장이 되셨기에 그에 맞는 불교학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중 불교학의 터전인 불교대학 발전이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불교대학은 수석대학임에도 많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불교대학 선배들은 아마 현재 불교대학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오래전 학교의 중심부인 명진관 시절부터 예술대학 사이의 문화관 시절,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 현재 만해관까지 단과교 건물 하나 없이 옮겨다니는 것이 바로 불교대학의 현실이었다. 또한 교원 총원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런

와중에 곳곳이 불교학 발전에 매진한 것이 바로 불교대학이었다. 지난 2014년 108주년기념관 건립에서는 불교학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학 발전을 위한 비전이 세워 있어 기대를 모았다. 불교계 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불교학도의 한명으로서 가슴 벅참을 느꼈다. 하지만 학교 내 사태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총장 선출을 계기로 다시금 108주년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불교학 진흥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더군다나 학자 출신이면서도 불교학에 정통한 스님이 총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크다. 많은 불자분들도 이번 학교의 새로운 모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명의 불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인사를연발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광고국 (02)2004-8213-6 쇼핑을연발닷컴 www.hyunbulshop.com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지사안내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단에서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